

# KOREA







## ANDAZ SEOUL GANGNAM 안다즈 서울 강남

글로벌 호텔 그룹 하얏트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안다즈'의 첫 한국 지점인 안다즈 서울 강남이 문을 열었다. 호텔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241개의 객실과 서로 다른 5개의 콘셉트를 아우른 레스토랑, 웰니스(Wellness) 공간과 맞춤형 이벤트 공간 등 최고급 시설을 갖췄다. 공간 디자인은 네덜란드의 Studio Piet Boon이 맡았다. 1983년 Piet Boon과 Karin Meyn이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로 건축, 인테리어 및 제품 디자인을 통해 기능성과 미학, 개성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보여주며 그들의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건축, 인테리어, 그래픽,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지민 기자

STUDIO  
PIETBOON

ANDAZ<sup>TM</sup> | SEOUL  
GANGNAM

STUDIO PIET BOON  
WEB: pietboon.com  
CONTACT: +31 20 722 00 20  
EMAIL: info@pietboon.com  
INSTAGRAM: @studiopietboon

안다즈 서울 강남  
WEB: andazseoulgangnam.com  
CONTACT: 02-2193-1234  
EMAIL: seoulgangnam@andaz.com





안다즈 서울 강남(ANDAZ SEOUL GANGNAM)  
 프로젝트명: 안다즈 서울 강남  
 공간 디자인: Studio Piet Boon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4  
 사진: Kyungsub Shin, 안다즈 서울 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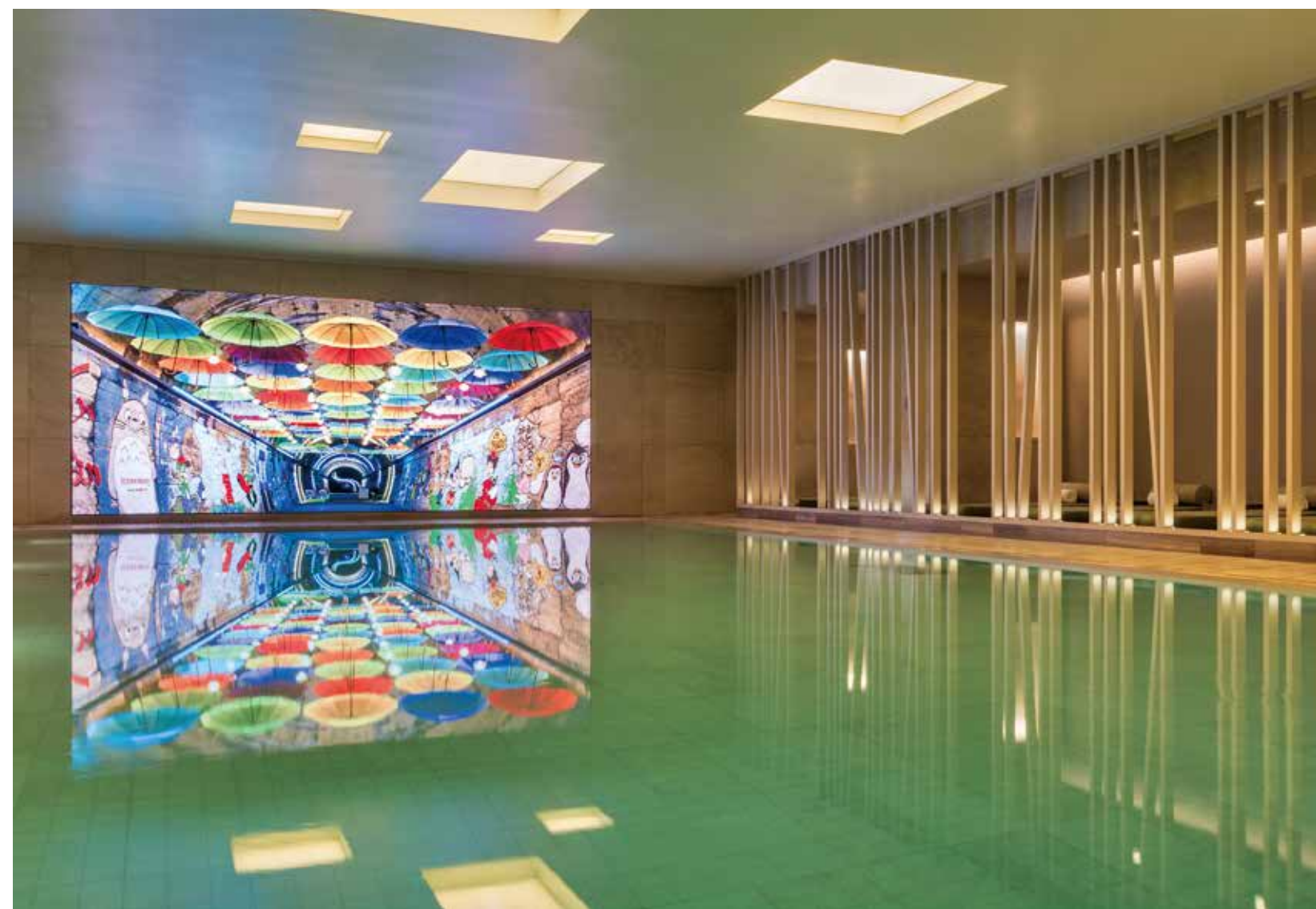
하얏트 호텔 그룹이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다즈 서울 강남은 전 세계 21번째이자 아시아에서 4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호텔 브랜드다. 안다즈는 “진정으로 현지를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감각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럭셔리한 서울 압구정동만의 시그니처를 인테리어와 서비스에 조화롭게 담아냈다. 또한, 지하철 출구와 바로 연결된 위치 덕분에 청담동, 가로수길, 강남역 등의 접근이 매우 편리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Studio Piet Boon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양인 조각보와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241개의 객실(25개의 스위트룸 포함)을 디자인했다. 이 외에도 프라이빗 체크인&아웃 서비스가 진행되는 안다즈 리셉션, 1층에 위치한 카페 라운지 아트(A+Z), 강남 곳곳의 미식골목을 콘셉트로 한 5개의 키친&바가 모여있는 다이닝 공간 조각보, 지하 2층의 맞춤형 이벤트 공간 비온드 더 글래스와 안다즈 스튜디오, 그리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고객 맞춤형 피트니스 클럽&스파 더 서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닝 공간 조각보에서는 애프터는 티와 와인, 샴페인 셀렉션을 즐길 수 있는 바를 비롯해 산지 식자재의 특징을 살린 프리미엄 그릴 요리와 다채로운 오븐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안다즈 서울 강남의 이벤트 공간은 기존 호텔이 갖고 있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유동적으로 연결 및 분리가 가능한 4개의 연회장과 3개의 안다즈 스튜디오로 구성된 모든 공간을 통합할 경우 최대 400명까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형된다. 또한, 넓은 로비 공간과 오픈 키친, 별도의 상담실 등이 준비되어 있어 소규모 행사는 물론 웨딩 만찬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통문화인 보자기와 조각보를 모티프로 삼아 디자인한 객실 인테리어는 한국적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련되게 풀어내어 투숙객에게 특별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사선으로 구성된 객실 안 벽면과 격자 모양의 프레임, 컬러는 모두 보자기의 분할과 짜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것이다. 투숙객들은 머무는 동안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통해 마치 보자기의 주름처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몰입감을 느끼며 매끄럽게 이어지는 특별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17층에 위치한 2개의 탑 스위트 룸은 여유 있는 테라스 garden과 바, 주방, 다이닝 공간, TV룸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이뤄져 다채로운 매력을 더했다.









## EAGLE SCHOOL 독수리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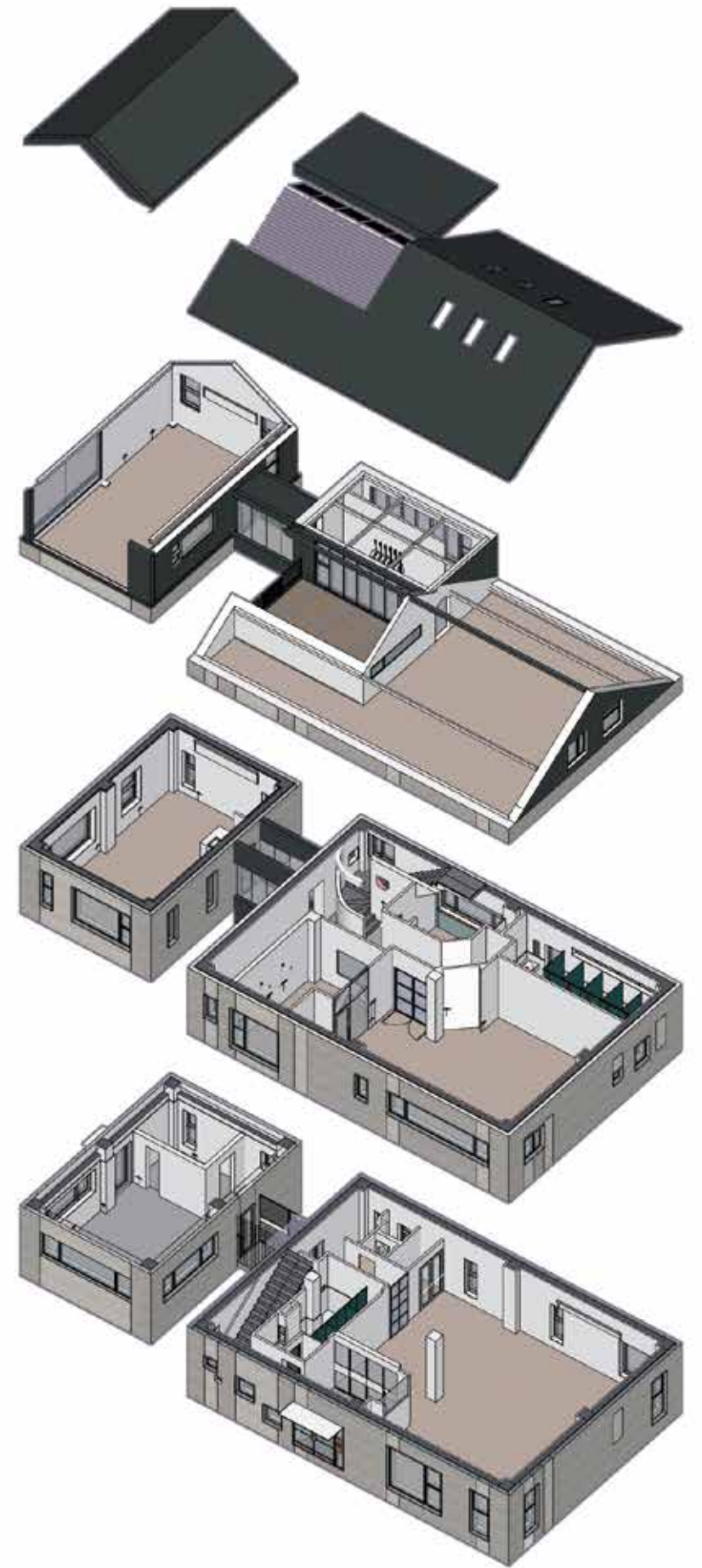
프로덕티브 주식회사(PRDTV)는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공간 프로듀싱 전문 스튜디오다. 그들이 상상하고 현실화시키는 건축, 가구, 조명 등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쓰기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PRDTV는 공간에 대한 불편한 경험이 개선을 만들고, 결핍이 열정을 불러온다고 믿으며 모든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들이 작업한 공간을 둘러보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을 불편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한번,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최고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연출하는 그들의 작업 방식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이지민** 기자

## PRDTV

프로덕티브 주식회사(PRDTV)  
WEB: [www.productive.kr](http://www.productive.kr)  
EMAIL: [prdtv@naver.com](mailto:prdtv@naver.com)







**프로젝트명:** 독수리 학교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90 (사송동 508)  
**연면적:** 494.60 m<sup>2</sup> (약 163PY)  
**대지면적:** 1.074 m<sup>2</sup> (약 354PY)  
**건축물 높이:** 11.44 m  
**규모:** 2개동, 연결 브릿지, 지상 3층  
**A동 - 1층 연구실(54 m<sup>2</sup>),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2층 미술실(54 m<sup>2</sup>)**  
**3층 음악실(54 m<sup>2</sup>)**  
**B동 - 1층 체육실(156 m<sup>2</sup>)**  
**2층 메이커스룸+3D 프린팅룸(120 m<sup>2</sup>),**  
**상담실(10 m<sup>2</sup>), 여자 화장실**  
**공간 디자인 및 PM:** PRDTV / 블루건축사 사무소  
**시공:** PLAN ANC  
**가구 제작 및 시공:** UFFIA  
**사이너지 디자인:** PRDTV  
**클라이언트:** 독수리 기독학교  
**사진:** 임석민

독수리는 동지에서 새끼를 밀어 내는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아이들을 독수리처럼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름 붙인 '독수리 학교'의 새로운 교육 공간이자 별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PRDTV가 맡았다. 별관은 본교에서부터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개별적인 독립 건물로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및 3D 프린팅, 상담실과 연구실로 구성됐다. 옛 건물은 토목회사 사옥으로 채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와 매우 제한적인 이동 동선 덕분에 어둡고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프로덕티브는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개선하여 아이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밝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예전 건물의 외형을 일부 유지하면서 증축을 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고, 창호를 남측으로 확대하여 채광과 환기에 대한 기능적 해결을 도모했다. 또한, A동과 B동,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에도 채광과 통풍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짧은 복도지만 외부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시켰다. 외관과 실내의 베이스는 본관과 비슷한 톤 앤 매너를 느낄 수 있는 화이트 톤에 그레이 컬러로 안정감을 주었지만, 가구 및 강당, 화장실 등 공간 곳곳에 다채로운 컬러를 적용하여, 그동안 학생들이 경험했던 학교의 이미지보다 경쾌한 분위기를 느끼며 창의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3층 음악실을 비롯해 천장과 벽면에는 흡음재를 활용하여 패턴과 컬러의 다양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하울링에 관한 우려를 줄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독수리 학교는 채광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세심하게 적용된 프로젝트다. 건물을 이어주는 계단은 밝은 곳을 향해 이끌어주는 통로이자 난간 디테일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낮의 독수리 학교는 특별히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공간 구석구석 퍼져나가 따스하게 밝혀준다. 사계절의 변화와 공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 학생들이 더욱 풍성한 꿈을 꿀 수 있는 학교로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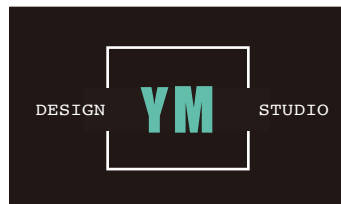




# BLEND ENGLISH INSTITUTE

## 블렌드 어학원

YM디자인은 교육공간을 전문적으로 디자인, 시공하는 스튜디오다. 2000년대 초부터 17년 간 교육공간을 전문으로 다뤄온 김강순 실장은 '우촌초등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이들의 공간'을 다루는 만큼, 아동의 환경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해 공간의 레이아웃을 짜낸다.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찬우 기자



YMDESIGN STUDIO  
WEB: [www.ymdesignstudio.com](http://www.ymdesignstudio.com)  
CONTACT: 02-6258-0303  
INSTAGRAM: @ymdesign.coll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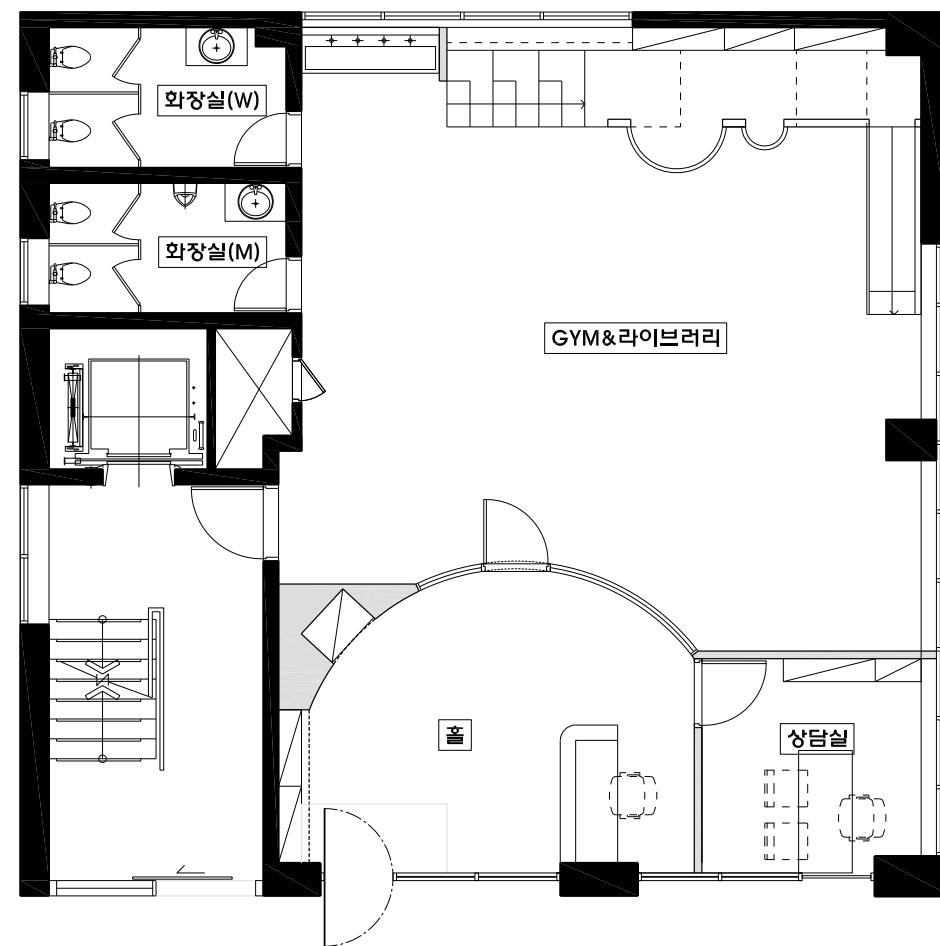




아동과 어른은 다르다. 아이는 같은 공간을 보고 어른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어른이 무척 쉽게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유치원생 정도 되는 이들에게는 흡사 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고려할 사항에 '나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YM의 작업에서는 바로 이 어린이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깊게 담겨 있다. 새 프로젝트인 '블렌드 어학원'에서 또한 그랬다. 청소년기를 지난 이라면 자연스레 책상 앞에 앉아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지만, 아동이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없다. 어린아이를 위한 어학원의 디자인은 그래서 달라야 했다.







프로젝트: 블렌드 어학원  
 설계: 김강순, 박연주, 안선정  
 시공: 김영은, 김현  
 면적: 427 m<sup>2</sup>  
 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7  
 천장: 노출천장 도장/도배  
 벽체: 리브보드, 도장, 인테리어 필름, 바닥 강화마루  
 사진: 쏘울그래프 포토그래피/진성기

블렌드 어학원은 유치부 아동들의 영어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놀이나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YM디자인 스튜디오는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의 특성에 맞춰 화이트와 인디고블루 컬러를 베이스로 디자인했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작마감을 사용했고, 도어에는 다운된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아동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기자기한 색채감을 이용했다. 라운드 형태의 문틀과 리브 보드는 조형적 부드러움을 안겨주었고, 미니멀한 소재선택으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어학원이 탄생할 수 있었다.











## STORY CLINIC 스토리피부과

2005년 설립된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INTOEX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왔다. INTOEX는 사람이 존중되는 환경, 사람의 생각과 생활의 질이 중심이 되는 문화적인 디자인을 꿈꾸며 공간과 공간,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집중한다. '항상 다르기를 기대하지만 틀리지 않은 공간'을 모토로 최선의 노력을 담아 기억에 남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차주현 기자

**INTOEX**  
DESIGN ASSOCIATES  
INSANE TO EXTREME MAKE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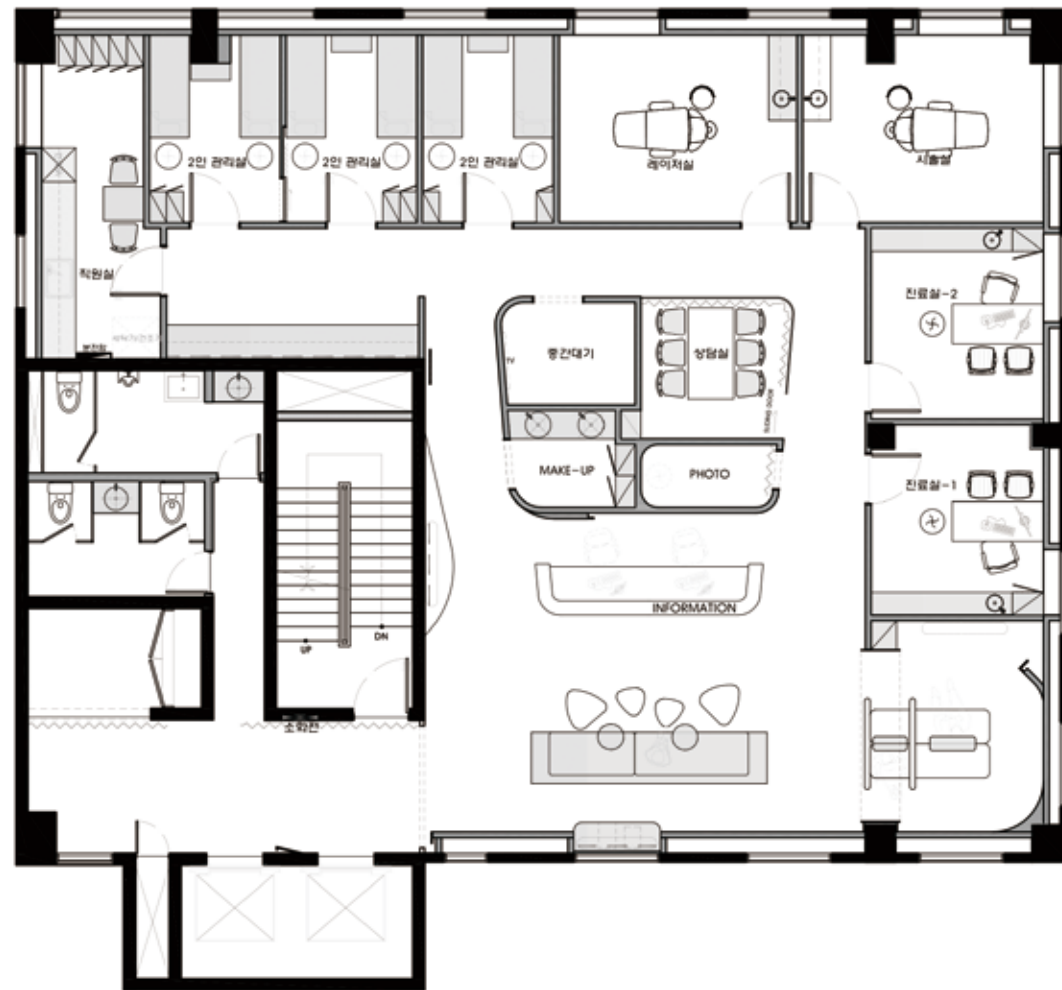
INTOEX

WEB: intoex.co.kr

EMAIL: intoex@naver.com

CONTACT: 02-543-3881





**프로젝트명:** 스토리피부과의원  
**기획설계:** INTOEX / 양윤준, 전종선  
**설계:** INTOEX 강신영, 김지희  
**시공:** INTOEX 용진한  
**위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20 남한강빌딩 7층  
**면적:** 231 m<sup>2</sup>  
**바닥 마감:** 공자갈  
**벽체 마감:** 스타코 도장, 무늬목  
**천장 마감:** 도장  
**사진:** 770studio 이재상

디자이너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썸, 양평의 강가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산자락과 닿아 흐르는 강줄기와 해 질 무렵의 노을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경을 보았을 때 디자이너는 온전한 여유로움을 느꼈고, 이내 프로젝트에 대한 모티프를 얻었다. 스토리피부과의 공간 디자인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오후 6시쯤, 평화로운 강가의 분위기'였다. 디자이너는 스토리피부과의원이 대로와 건물로 둘러싸인 강남의 빌딩 숲 한복판에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스토리피부과의 공간 디자인은 부드러운 색감과 선의 사용을 통해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한 분위기로 안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조명의 톤과 통일된 컬러로 노을이 질 무렵의 시간대를 표현했으며, 소재를 통해 평화로운 강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매스와 매스의 간격, 그리고 부드러운 곡면이 자연스럽게 시선에서 사라지도록 구상한 요소를 통해 방문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인포데스크와 벽면 사이의 복도 도입 부분은 곡선 형태의 선반 오브제로 인상적인 매스감을 드러내며, 로비 공간 곳곳에 활용한 곡선의 형태가 시각적 확장감을 더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스토리피부과의원의 로비 공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안겨준다. 그러나 오픈된 공간과 프라이빗한 중간 대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하는 고객을 배려했다. 특히 복도 공간, 관리실, 시술실 등에는 스토리 피부과 공간만의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 제작한 가구, 벽부 및 스탠드 조명으로 채워 고객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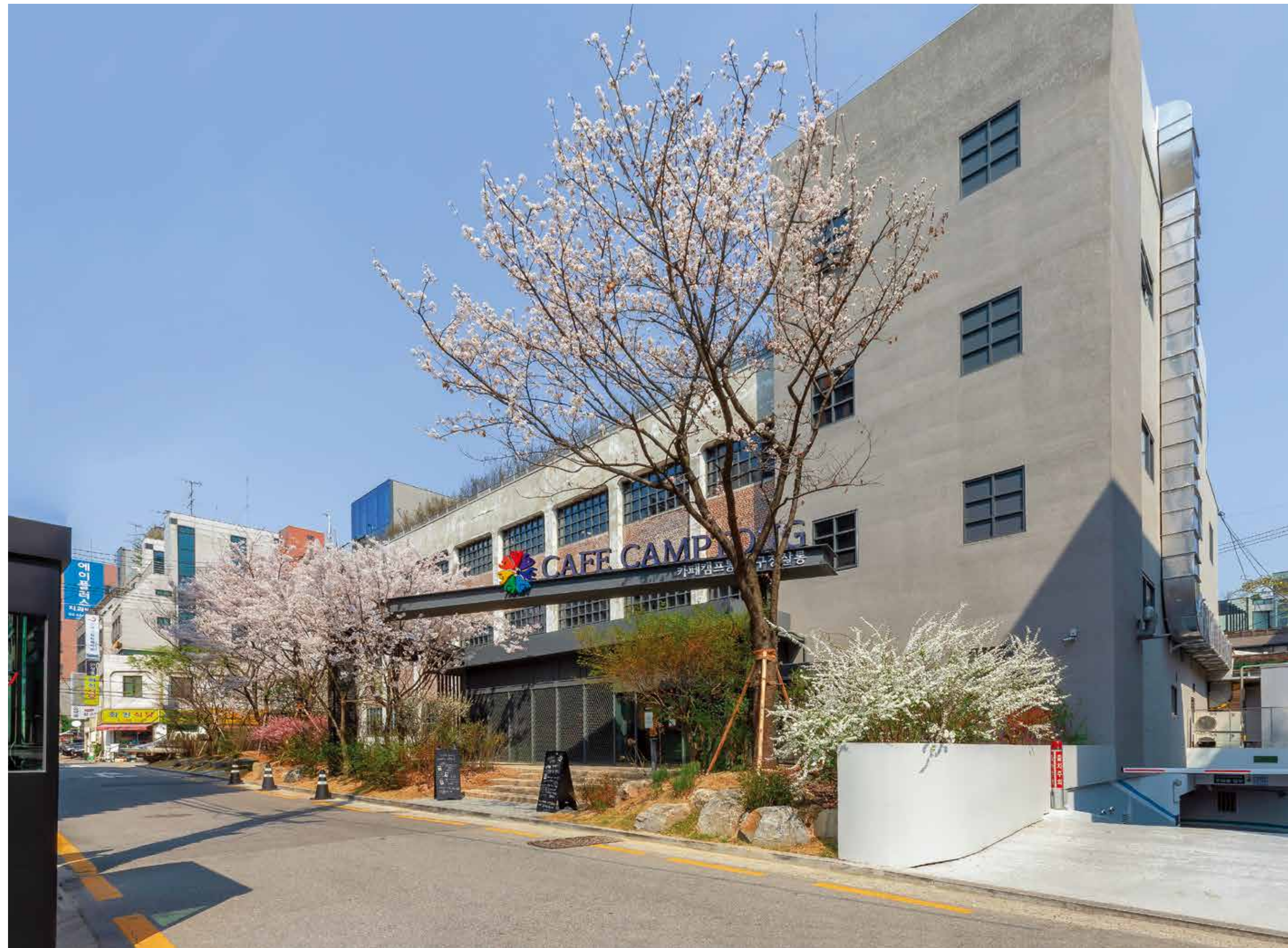
# CAFE CAMPTONG

통그룹은 가평 청평호반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수상 레저 시설 겸 리조트인 '캠프통 아일랜드'와 '캠프통 포레스트'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이외에도 박물관은 살아있다, 런닝맨 체험관, 다이나믹메이즈, 놀이동산 등 체험형 테마파크 전시관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티브통, 대구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아쿠아월드, 사회복지재단 아이들과 미래, 출판 브랜드 거북이북스, 주식회사 플레이통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를 포함 문화, 여행, 레저 전문 사업 그룹으로 임직원 개인과 고객의 재미, 행복, 자아실현, 이타심을 이루려 노력한다. 최근 이들이 압구정에 오픈한 '카페 캠프통'은 사람이 기적이 되는 공간을 표방하며 고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통그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너지를 통해 낯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App, Web, Place가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상했고, 이것이 바로 카페 캠프통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찬우 기자



(주)카페캠프통  
CONTACT: [cafecamptong@cafecamptong.com](mailto:cafecamptong@cafecamptong.com)  
TEL: 02-3445-0369  
INSTAGRAM: @cafecampt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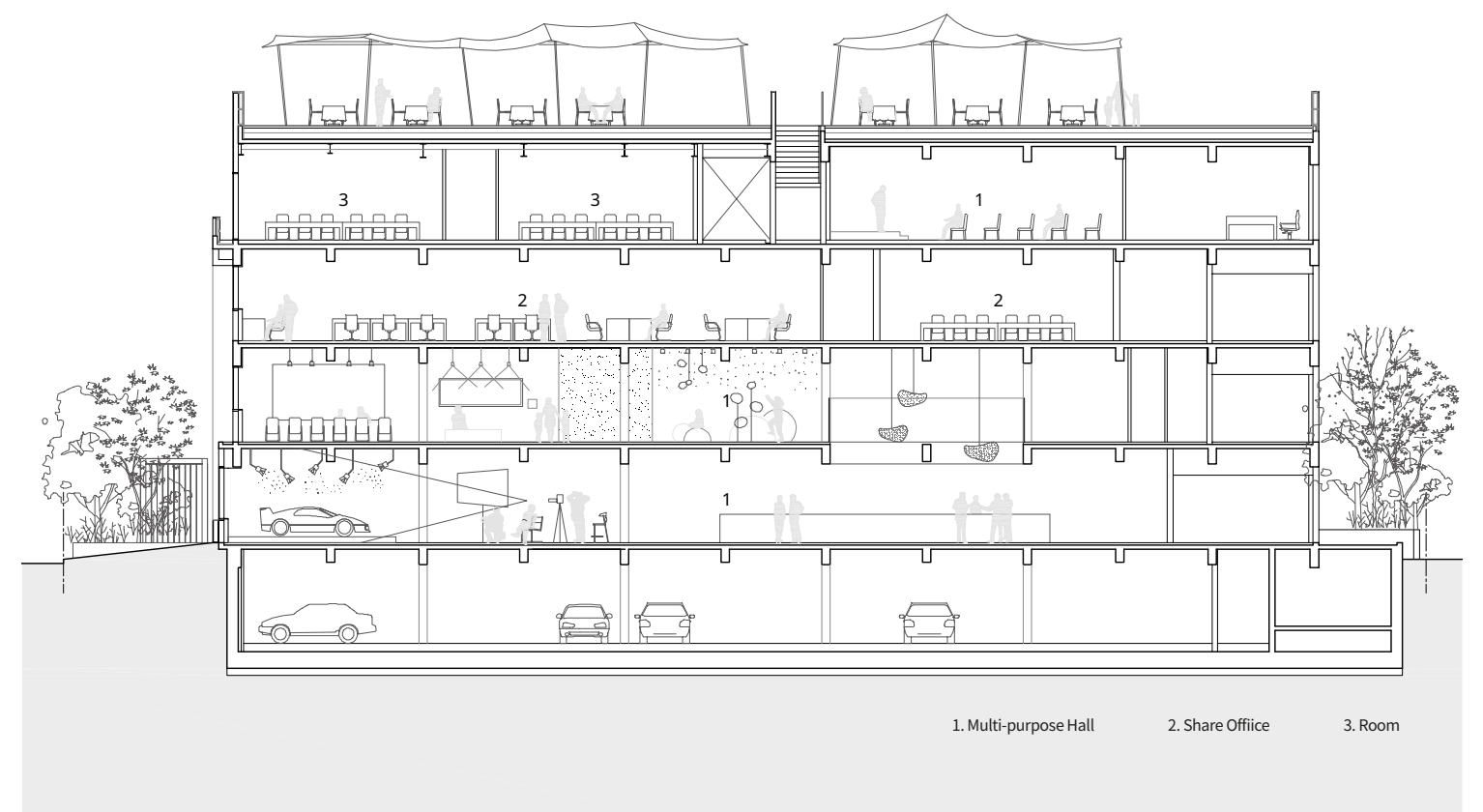






**프로젝트:** 카페 캠프통 압구정살롱  
**설계:** S.E.E.D. haus, CALIFORNIA DESIGN LAB, PARKS D&B  
**설계담당:** 백은정, 안성현, 이지선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3-22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656.70 m<sup>2</sup>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마감:** 외부 - 타일샌딩, 미장샌딩마감, 내부 - 노출콘크리트  
**설계:** 구조 - ㈜미래구조엔지니어링  
       기계 - ㈜디이테크 설비 컨설턴트  
       전기 - 기술사사무소 우림전기  
**시공:** ㈜다원아이디엔씨  
**조명:** Mavericks  
**조경:** Openness Studio  
**사진:** 오세원

‘카페 캠프통 압구정살롱’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1,700평의 국내 최대 규모 살롱 카페로, 프리미엄 커피부터 신선한 빵과 음식, 그리고 카페 캠프통 앱과 연동된 내부 시설 및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건축가는 카페 캠프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도시와 고립된 공간, 멈춰진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지을 것인지 고민했다. 과거에는 마켓이었던 곳이 사무실로 바뀌는 일은 매우 손쉽고 흔한 일처럼 비치지만, 만약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맺지 못한다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곳에 있을 뿐인 건물들 중 하나가 되고 만다. 1층과 2층 사이의 경계를 부수어 이 공간에 쌓인 시간을 드러냈고, 이 낮은 ‘드러냄’을 통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기대와 흥미를 극대화했다.







카페 캠프통은 층 별로 각 다섯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고객을 맞는 1층(도토리)은 식음료 공간으로, 카페의 음료와 빵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통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파티, 세미나, 요가, 댄스 클래스 등이 열리는 이벤트 룸 또한 카페 캠프통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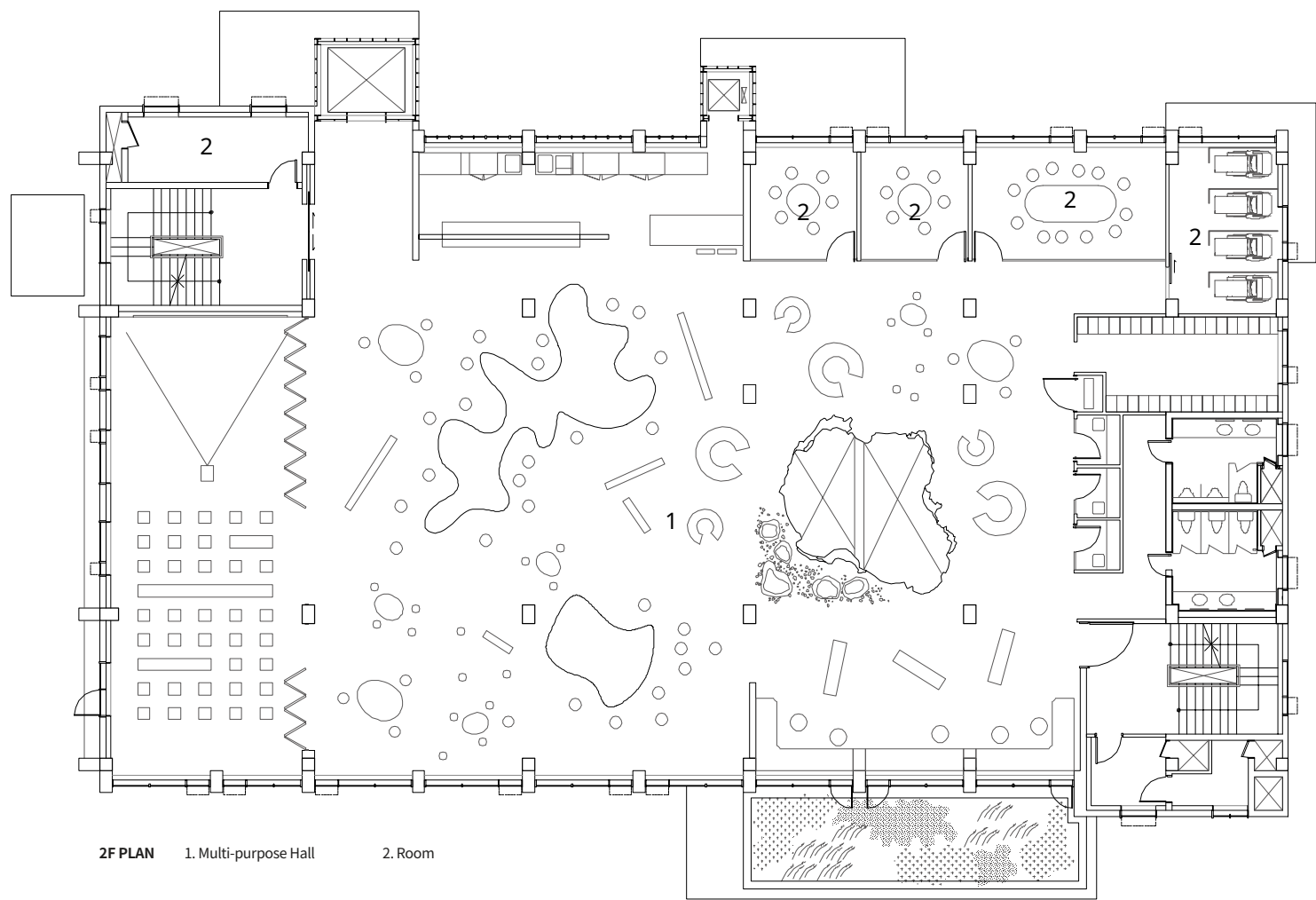






재밌는 점은 공간 곳곳에 '신선한 공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형 산소발생기와 동파이프를 통해 전층에 신선한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 공기청정기로 맑은 공기를 순환해 마치 산림 속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파이프는 그 자체로도 카페 캠프풍을 독특하게 만드는 인테리어 요소가 되었다. 이는 일상적인 삶과 도시로부터 카페 캠프풍을 분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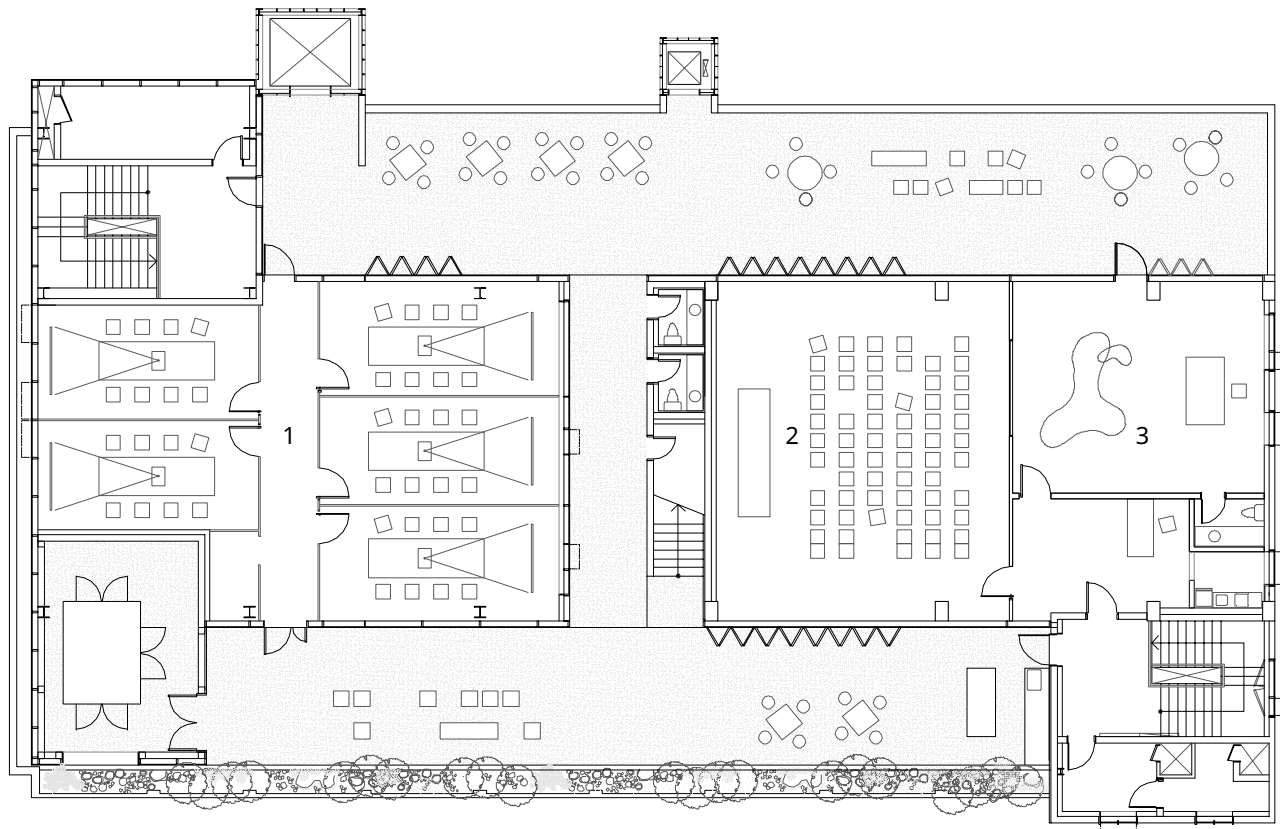




2층(아일랜드)은 워크샵, 대형 모임, 파티, 쇼케이스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대강연장, 각종 모임과 이벤트가 가능한 크고 작은 사이즈의 룸, 편히 쉴 수 있는 안마의자, 회원에게 제공되는 락커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쪽에 위치한 백남준 작가의 작품은 카페 캠프통의 분위기와 어우러진다. 3층은 오피스 공간으로, 회의실, 대형 화상회의실, 샤워실 및 수면실 등이 위치해 멤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F PLAN 1. Room 2. Multi-purpose Hall 3. Administration

4층(마운틴)은 2,3층과 마찬가지로 각종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주방이 있어 쿠킹 클래스를 열 수도 있고, 테라스에서 파티를 개최하기도 한다. 카페 캠프통은 도심 속 작은 숲을 연상케 하는 야외 정원, 루프탑, 장식을 건너낸 옛 외관을 그대로 드러낸 건물, 영국에서 가져온 빈티지 가구로 채워 오래 머물러도 편안한 공간을 구성해냈다. 도시에서 자연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카페 캠프통이다.

